

장학월보

2011
제218호(통권437호)

4

■ 장학특집 / 녹색성장 환경교육

■ 교육정보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

■ 전문가초대석 / 학습클리닉



2011년도 경남 교육정책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녹색 성장 환경교육
4. 기초 질서 생활화
5.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6. 교원 전문성 신장
7. 학교경영의 책무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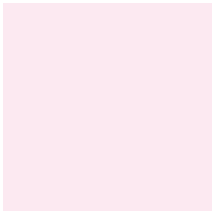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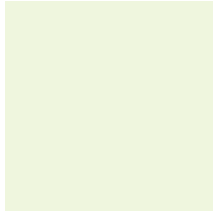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임는 학교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1. 4 제218호(통권 437호)



02 권두언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8 교육 칼럼
10 특집 /
 녹색성장
 환경교육

25 수업기술 나누기

32 교육정보

35 이색 교육 현장

50 전문가 초대석

52 참여마당

59 향기나는 서가

61 지상갤러리

• 환경교육은 가장 중요한 미래교육입니다 / 고영진

• 학교안전사고 대처 방안 / 이수진

• 녹색성장교육으로 가는 길목 / 김인성

• 동부아이들! 자연을 보고, 듣고, 느끼다 / 신원태

• 쓱쓱 배워 쓱쓱 커가는 환경사랑 / 정순호

• Eco-Green School 창덕 / 김종근

• 그림책을 활용한 극놀이 / 김희영

•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과학탐구능력 신장 / 김현지

• 창의력과 사고력 신장? 독서수업이 해답! / 이인선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 농어촌 지역 환경을 활용한 천혜지인교육 / 이재우

• '화정옴제'로 미래의 소중한 꿈을 키워가는
작지만 옹골찬 화정초등학교! / 박영은

• 함께 즐기고, 함께 이야기 하며,
함께 느끼는 교실 속 인성교육 / 왕주은

• 가족(지역)과 함께 하는 밤샘독서캠프 / 김영환

• Leader를 키우는 Readership 프로그램 / 신진용

•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전략 / 변경오

• 교 원 - 천안함 침몰 1년이 지난 지금 / 한상기

- 원장님은 면허증 있어요? / 정숙자

- 일곱 송이 보석 꽃 / 안정애

• 학 생 - 팔용산 / 백승엽

• 지리산 행복학교로의 여행 / 이미영

• 봄과 장미 / 송정희

▶ 표지사진 - 박준일(구산초등학교구서분교장)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5월호 모집 기간 : 2011년 4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1년 4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강대룡 • 편집주간 :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김정희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환경교육은 가장 중요한 미래교육입니다.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순백의 목련이 활짝 피어 미소를 머금게 하는 4월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나뭇가지에 다시 움트는 새 생명은 우리에게 자연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새롭게 시작되는 많은 일들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지금 세계는 많은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대지진으로 인해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더구나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은 식수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고민하고, 교육현장에서부터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자연과의 조화와 상생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약 45억만년으로 추정되는 지구의 역사에서, 현생인류가 출현한 것은 불과 1만여년에 불과합니다. 많은 종의 생물들이 탄생과 멸종을 거듭했지만 인간만큼 자연의 은혜를 입고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 온 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달리 보자면 사람은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빛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며 살아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과학이론에서 비롯되었지만 지금은 경제학이나 사회과학 이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의 뜻은 카오스 이론에서 출발했으며,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 짓 하나가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위의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또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환경에 커다란 재앙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지금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환경은 수동적인 무정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인간과 환경이 유기적으로 화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앞당겨’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환경교육은 가장 작은 실천으로,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환경교육은 거창한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상에서 자연을 살아 있는 생명으로 인정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사랑과 소통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그 혜택이 돌아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인간의 삶도 자연의 세계처럼 서로를 긍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상생적 관계를 이루어야 다양하고 풍성하게 발전해 갈 것입니다.

4월, 모든 생명들이 제 빛깔을 드러내는 순간들을 보며, 작은 생명체 하나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닙시다.

감사합니다.

2011. 4.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06

- 01 공공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 협약식
- 02 3.15의거 기념식
- 03 감사자문위원 위촉
- 04 경남-전북교육청 체험 자원 활용 MOU체결
- 05 경남교육청-경남FC MOU 체결
- 06 교육감, 도지사 학교 급식 도우미 활동



07



08



10



09



11

- 07 통영교육지원청 - 2011학년도 학교 컨설팅 연수
- 08 사천교육지원청 - 북프렌드리 입학식
- 09 김해도서관 - 2011년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개강
- 10 창원교육지원청 - 컨설팅 장학에 관한 연수
- 11 남해교육지원청 - 보물섬 남해독서학교 개교식

책 읽는 도민! “독서문화로 소통하다.”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은

독서를 생활화하여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독서문화운동입니다.

- ◆ 독서 생활화로 ‘책 읽는 학교’를 만들어 갑니다.
- ◆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합니다.
- ◆ 독서 생활화 운동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 ◆ 찾아가는 독서서비스와 생활 밀착형 독서공간을 조성합니다.

"책을 덮어 놓으면
딱생달이지만 펼치면
순간 생달이 되고,
교감하며 친구가 됩니다."
-빙송인 김계동-

"불편한 뭉으로도 독서에
갑작했던 이유는
책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리학자 스티븐 호킹-

‘우리는 온 가족 독서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지금 독서 중!



독서운동은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운동입니다.



도민 여러분!

- ◆ 1일 1회 TV를 끄고 '책 읽는 시간' 갖기는 가족 대화의 시작입니다.
- ◆ '책 선물'하기는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 ◆ '직장독서 시간갖기'는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 ◆ '책 돌려 읽기'는 책 속의 향기를 공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 ◆ 도서관가증 운동 참여는 '책 읽는 경남'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책 읽는 경남만들기' 참여는
우리 경남의 인재를 대한민국의 인재,
세계의 인재로 만들 것입니다.



캐릭터 이름 : 초록이
캐릭터 공모 최우수작 : 이주희

학교안전사고 대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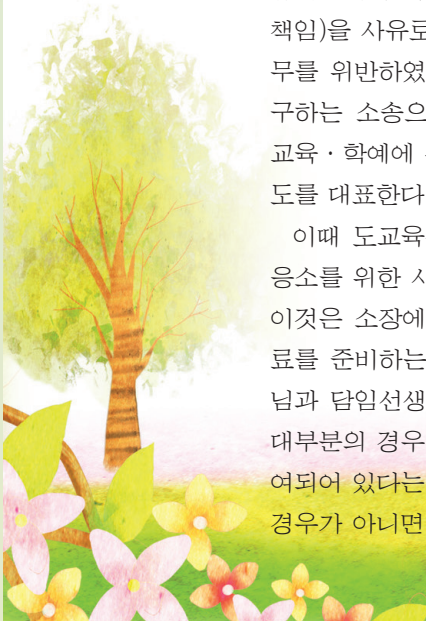


이 수 진
예산복지과장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및 주변의 여건 등도 학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사소한 학교안전사고가 오늘날에는 정식 소송으로 제기되어 일선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송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전문성이 없어 소장을 받는 순간 난감함을 떨치기 어렵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소송 중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학교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관련 민사소송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원고가 되어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이 다수 있는데 이 소송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치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은 경우 학교의 설치·경영자로서의 책임(사용자로서의 책임과 학교 시설물의 설치·관리자 및 소유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교원의 책임(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과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사유로 학생의 지도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 급여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피고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을 근거로 경상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해당학교에 소장 접수를 통지하고 응소를 위한 사건경위서와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의 의견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 확인과 다름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임에도, 이때 학교에서는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많이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소송은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정확한 사건경위서와 의견서의 내용으로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즉,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표시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의 의무는 끝이 나는 사항으로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에서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하여 해당 교사에 대하여 형사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사고 발생 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실험실습이나 체육시간에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사전에 안전지도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수업시간 내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수업이 종료 된 후에도 학습 기자재 등의 정리를 교사 감독 하에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데, 신속히 응급치료를 하고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119에 바로 연락하여 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신속한 조치와 더불어 담당교사가 직접 학생을 이동시키고 학생을 안심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사고 학생과 학부모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태도일 것이다.

이런 소송은 지도감독 소홀 및 안전관리 소홀의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는 원아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 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아와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원아나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대법원 2002. 5. 10. 선고2002 다 10685)의 확고한 입장이기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우리 교육청이 불리하지 않다. 하지만,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실정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일 경우 소송의 장기화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문제로 1심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의 의해 소송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제소하여 시비를 가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학생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것이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관리 생활지도, 실험실습이나 체육 시간 전의 사전 안전지도, 학생들에 대한 상담지도 그리고 영조물(놀이시설, 실험기구 및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정기적인 사전 점검이 필수적일 것이며 이를 기록으로 보존하여 학생들의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발생시 최선의 대처방안임을 명심해야만 될 것이다.

녹색성장교육으로 가는 길목



김인성
우포생태교육원 원장

1. 들어가며

“지난 11일 센다이(仙台)시 동쪽 179km 해역에서는 규모 9.0의 일본 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거대한 쓰나미가 도시를 덮치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라고 일본 매스컴의 발표는 시작된다. 이어서 “2011년 3월 13일 일본 동북부 미야기현에 자리 잡은 인구 100만 여명의 항구도시 센다이시, 활기차고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유령도시처럼 변해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열친 데 덮친 재난에 센다이 시민들은 모두 넋을 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방사성 물질을 대량 유출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위험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16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의 물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4호기의 핵연료봉을 냉각시키지 못하면 제어할 수 없는 열이 화재로 발생하고, 그 여파로 사용 후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면 방사능 물질이 무차별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폐연료봉 저장고에 공중에서 물을 투하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 헬리콥터를 현장에 파견했으나 폐연료봉 저장고 위의 방사능 수준이 너무 높아 철수시켰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시내 수돗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광범위한 핵오염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으며, 방사능 누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을 빠져나가려는 외국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대지진과 방사능피폭에 대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2. 가운데 말

샌다이 대지진은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다. 물론 지각의 변동에 따른 판구조의 단층작용에 의해 일어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생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피폭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은 꼭 필요한 재생가능 에너지의 하나인가? 또한 녹색성장교육의 길목에 없어서는 안될 화두인가?

가. 지구온난화

고다드 항공우주연구소(GISS)에 따르면, 1906년부터 2005년 사이 지구평균온도는 섭씨 0.74도 상승했다.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는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1.8도에서 4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1880년 전후의 지구평균온도는 13.8도 전후였으나 2007년 전후에는 14.6도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만일 IPCC가 예측하는 것처럼 최악의 경우가 초래된다면 인류는 산업혁명 이래 6도 가까운 온난화를 부르게 된다. 갈수록 온난화 영향이 심해지면서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는 모두 1995년 이후 발생했다. 더욱이 가장 더웠던 해(2005)를 비롯해 8위까지 2000년대에 들어서만 7개년이 들어있다.

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월드위치연구소의 2009년 보고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배출의 책임이 큰 국가는 단연 미국으로 국가단위 배출량이 거의 58억 톤에 육박하고 1인당 배출량도 5.5톤에 육박하고 있다. 그 뒤를 잇는 이산화탄소 10대 배출국들은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으로 한국은 이들에 이어 9위이고 이탈리아가 10위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배출량에서도 4.5톤으로 10위권 국가이기도 하다. 이 순위는 자랑할 만한 순위는 아닌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적게 만들고 적게 쓰는 일일 것이다.

다. Sick Planet

지구가 병들었다(Sick Planet)는 게 더 이상 충격적인 표현은 아니다. 어쩌면 병든 지구보다는 병든 경제가 더 급박하다는 것이 서민들의 절박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전 지구적 경제혼란의 징후가 처음으로 나타났던 2008년 9월, 우리정부는 녹색성장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일련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계획은 바이오연료, 태양전지, 연료전지, 원자력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LED 전구, 바이오신약,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의 영역을 아우른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더 많은 에너지 소비나 더 많은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는 제본스 패러독스를 입증하는 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녹색성장교육을 통한 국민계몽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의 기반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 녹색성장교육의 필요성

지난 100년 사이 한반도의 평균온도 상승은 지구평균의 두 배 이상 높은 1.5도에 달한다. '저탄소녹색경제'를 정책중심에 두겠다는 정부의 대책 중 핵발전을 기반으로 한 대체 에너지 생산 의지를 통해 긴박한 한반도 온난화 현실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위기에 마주선 우리나라의 진정한 녹색전환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정책에서 시작해야하고,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아껴 쓰고 나눠 쓰는 검소한 생활의 실천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 녹색성장과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높이고 체험 활동을 강화해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창의-인성교육 기본 방안'을 확정하고, 초·중·고 학교에서의 교과목별 수업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되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및 자질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하고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었으며, 지나친 교과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폭넓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체험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지적·정의적·심동적 기능을 골고루 갖추도록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다.

녹색성장교육은 이제 창의·인성교육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은 녹색성장교육과 어우러질 때 진정한 환경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3. 나가며

녹색성장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에 반드시 녹색성장교육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국민 모두의 피부 깊숙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대지진에 대한 일본인의 대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다. 대재앙 앞에서 질서 있는 시민행동과 매뉴얼 사회의 실천은 비록 표정 없는 얼굴처럼 보이는

그들의 걸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바로 평상시 일본교육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녹색성장교육의 결과로 인해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의 녹색환경에 대한 의식과 생활습관은 어떻게 변할까? 이러한 변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 녹색성장의 개념을 녹아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녹색성장교육의 실천은 지혜로운 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투정하는 어리고 철없는 자식에게 밥을 먹이는 것처럼 어렵고도 행복한 일이다.



동부아이들! 자연을 보고, 듣고, 느끼다.



신 원 태
거제 동부초등학교 교장

2010학년도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월 3차례 전 교원이 모여 교육과정 협의회를 가졌으며, 본 협의 결과 아래와 같은 여건 및 특수성으로 고려하여 본교의 2010학년도 교육과정 중점 운영 방향을 생태교육으로 정하고, 자연체험학습을 위한 자료 수집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연수회 개최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의 슬로건을 ‘푸른 숲에서 행복한 꿈을 키우는 동부교육’에서 ‘자연을 배우며 더 큰 꿈을 키우는 동부교육’으로 수정하여 자연 속에서 우리 동부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하였다.

본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리적 특성 및 여건을 가지고 있다.

본교는 지리적으로 거제의 주요관광지인 ‘노자산자연휴양림’, ‘학동몽돌해변’, ‘문화관광농원’ 등이 학구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학교의 뒤편에는 노자산이 자리하고 있어 등산로를 통해 언제든지 숲 체험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도보를 통한 거제 중심 하천인 ‘오망천’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한 인근 갯벌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거제에 있는 습지 중 가장 큰 규모인 ‘산촌습지’가 위치하고 있어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자연체험활동이 가능한 전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림1) 녹색학교 사업을 통한 생태학습장 조성

또한, 본교는 2008~2009학년도 녹색학교 사업, 2008학년도 운동장 녹화사업을 통해 자연체험을 위한 학교내부적 환경이 정비되어 있어 어느 학교보다 생태교육을 하

기에 적합한 학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및 여건을 바탕으로 녹색성장, 생태교육을 위해 환경영역을 숲, 강, 갯벌, 습지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환경영역을 계절별 요인을 감안하여 <표1>과 같이 자연체험교육 주제를 정하여 2010년 한 해동안 실시하였다.

순	환경교육영역	자연체험활동 주제
1	숲	숲에서 자라는 나무 알아보기
2		새순 관찰하기
3		봄에 피는 야생화 관찰하기
4		나무의 나이테에 대하여 알아보기
5		내 나무 찾기 활동을 통한 나무와 대화하기
6		나비의 생태에 대하여 알아보기
7		땅 위에서 생활하는 생물들에 대하여 알아보기
8		여름에 피는 야생화 관찰하기
9		곤충의 생태에 대하여 알아보기
10		가을에 피는 야생화를 관찰하고, 식물의 한 살이 알아보기
11	강	양서류의 생태 알아보기
12		수서곤충의 생태 알아보기
13		자연염색 해보기
14		담수어류의 생태 알아보기
15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담수어류 관찰하기
16		천연기념물 '수달'의 생태를 알아보고,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해보기
17	갯벌	바위에서 생활하는 갯벌생물 관찰하기
18		모래나 펄에서 생활하는 갯벌생물 관찰하기
19		여름철새를 관찰하고, 여름철새 도감 만들기
20		갯벌 생물 중 '게'를 관찰하여 보고, 그 생태 알아보기
21		겨울철새를 관찰하고, 겨울철새 도감 만들기
22	습지	우포늪에서 생활하는 생물 관찰하기

<표1> 환경영역별 자연체험활동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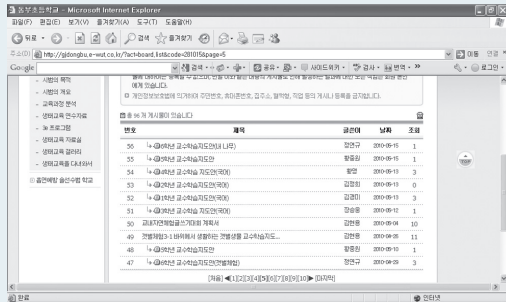
특히, 본교의 경우 1개의 분교(울포분교장)를 포함하고 있는 학교로 분교학생들과의 지속적인 통합교류학습을 가질 수 있도록 분교와 함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 매월 1회 통합교류학습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인 '초록빛깔사람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전문 강사진의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받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생태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림2> 통합교류학습 장면 - 울포만

여름방학 중에는 지속적인 생태교육을 위해 본교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7월 21일에서 7월 24일, 총 4일간 여름방학 자연캠프를 실시하였으며, 인근 학교인 외간초등학교 학생들(8명)도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위와 같은 학생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생태교육을 위한 교사연수도 개최하여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 생태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지도안 <그림3>과 생태교육자료를 탑재하도록 하여 생태교육에 관심이 있는 타 학교에서도 손쉽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교수·학습자료

본교의 생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본교의 학생들은 다양한 생태교육을 체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 중의 하나는 2009학년도까지만 해도 본교에 있는 연못에 금붕어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게 계속해서 사라져갔다. 그러나 올해에는 본교 학생들이 직접 하천에서 담수어류를 잡아서 넣고 관찰하는 활동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연생태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껴 단 한 차례도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해치는 일과 연못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본교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생들의 자연친화적인 행동양식이 생겨났다고 판단되며, 본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얻어진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림4>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캠프

작년 한 해 동안 본교는 경상남도교육청지정 생태교육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은 물론이며, 곳곳에 널려있는 생태교육을 위한 장소를 우리 아이들은 모르고 생활하고 있었다. 작년에 실시한 생태교육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도교육청의 생태교육에 맞춰서 진행되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역 특색에 맞는 생태교육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씩 깨우쳐 가는 모습들을 보며, 그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동부어린이들이 자연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쑥쑥 배워 쑥쑥 커가는 환경사랑



정 순 호
함양 위성초등학교 교장

‘실천중심의 친환경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환경 보전 의식 함양’이라는 주제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환경시범학교를 지정받아 운영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환경은 21세기의 화두가 될 정도로 우리 생활의 절대적인 문제로 자리잡았으며, 단지 국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및 협상의 과정에서도 환경 문제의 해결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지표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에게 녹색 성장, 저탄소, 환경 경영이라는 말들이 낯설지 않음은 우리가 사는 현 시점에 직면한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그에 대한 사회·제도적인 다방면의 대책과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실천 중심의 친환경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 보전 의식을 심어주고자 본 시범학교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1.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환경교육을 위한 학교 제반 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환경사랑코너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태양 전지를 이용한 완구를 전시하고 풍력 발전 시스템에 대한 설명 자료를 게시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사례를 안내하였다.

학년별로 환경계시판을 구성하여 환경교육정보, 환경보전관련 시사, 환경보전 홍보자료 등을 게시하고, 창가 및 복도에 재활용품을 이용한 화분을 만들어 다육식물을 심어가꿈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실내 환경이 조성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교내에 자라는 식물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성동산과 화단에서 자라는 꽃과 나무에 패찰을 설치하였다.

학교 운동장 주변에 태양광 가로등 4개와 학교 옥상에 풍력발전기 1대를 설치하여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화단 한 쪽에 생태 연못을 조성하여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게 하였고, 교사 뒷편의 콘크리트 옹벽을 친환경 생태 화단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학교의 외적인 환경 기반 조성과 더불어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의 마인드를 형성하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환경수업의 질 개선을 위하여 선진 학교 방문 및 환경 관련 현장을 답사하였다. 또, EM발효액,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지렁이 사육 및 식물재배, 옥상 정원,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천연비누, 정원, 환경교구 만들기, 제주 예래 생태마을 견학, 습지환경 등에 대한 환경 연수에 참가하였고, 환경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매주 1회 교내 자체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덕유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찾아가는 숲 해설 프로그램, 나무 곤충 만들기 체험, 찾아가는 국립공원 환경 교실, 반달곰이 찾아가는 환경 교실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군청과 연계한 환경보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2. 친환경 활동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먼저 각 교과별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환경 관련 지도 요소를 추출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학년별로 재구성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학년의 재량활동 68시간 중 34차시를 환경영역으로 고정하여 편성·운영하였다. 저학년용(1,2학년), 중학년용(3,4학년), 고학년용(5,6학년)으로 세분화하여 제작·활용함으로써 학년 수준에 맞는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실천적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였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학년별로 환경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환경동아리 ‘풀벌레’는 우리 고장 상립의 자연환경, 곤충의 종류 및 생태상을 정리하여, 우리고장 곤충도감, 곤충지도, 년도별 곤충간 개체 수 비교표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지난 해 경상남도 과학교육원에서 열린 제17회 경남학생과학올림픽 과학동아리활동 발표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환경교육 자료를 소개하여 사이버 교사 연수 및 학생 교육, 학부모 교육을 전개하였다. 또한 환경교육 학생 활동 결과물 및 활동 사진을 탑재하여 학생 활동을 홍보하였으며, 자유게시판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환경교육 마인드 확산에 노력하였다.

환경부 위탁기관인 환경보전협회로부터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동교구상자를 대여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환경수업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고, 지역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환경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3. 친환경 생활의 정착 및 확산

친환경 생활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성환경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월 2회 학교 운동장과 학교 진입로 주변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환경일기 쓰는 날’로 정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요일별로 환경 실천 주제를 설정·운영하였다.

급식소에 비치된 일회용 티슈가 너무 소모적이고 낭비가 심해 티슈를 쓰는 대신 개인용 손수건을 휴대하고, 교직원들은 커피나 녹차를 마실 때 일회용 종이컵 대신 개인용 컵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친환경 포어 짓기, 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광고물 만들기, 환경 글쓰기, 환경학습장 기록, 환경 도서 독후감 쓰기, 폐품 활용 만들기, 환경 신문 만들기, 환경 탐구 보고서, 환경 만화 그리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학기별로 학예행사를 전개함으로써 환경에 대해 배우고 익힌 내용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 마인드 확산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의 가장 큰 실천 주체가 되는 학부모 및 관내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저탄소에너지,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 활동 중심의 주제로 학부모 통신 자료를 월별로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친환경 생활의 정착을 위해 EM을 이용한 친환경 세제 만들기, 친환경 비누만들기, 천연염색, 풀잎공예 등의 주제로 학부모 환경교실을 운영하였다.

4. 환경교육 시범 운영의 결과 및 제언

환경교육 여건 조성 및 친환경적 체험학습 활동 및 다양한 환경관련 행사를 통하여 환경보전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자연과의 친숙감을 높이고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고, 교내 교사 환경 연수를 통해 환경 교육력이 한층 제고되었으며, 환경 관련 교육과정 분석 및 환경 재량활동 수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환경 보전 활동 실천으로 환경 보전 의식을 심화시켜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환경 보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환경교육과 더불어 교육공동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체험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에서의 환경교육과 더불어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이 있어야겠다. 또한 학부모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환경교육 대상의 범위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해야겠다.



Eco-Green School 창덕



김 종 근
창원 창덕중학교 교장

1. 필요성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고 있다.

2008년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기존의 성장패턴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시키자는 개념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 및 시장창출을 뒷받침할 미래 녹색인재 육성, 나아가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글로벌 녹색시민 양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특히, 녹색시대를 살아갈 주인공은 청소년들이므로 그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녹색기술 사회에 대비한 녹색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닌 자신의 소비 결과가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동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본교는 학교교육과정에 녹색성장의 가치를 적극 반영한 Eco-Green School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녹색사회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2. 교육 내용

가. 녹색성장 교과활동 편성·운영

- 1) 교과별 녹색성장 관련 단원 추출 및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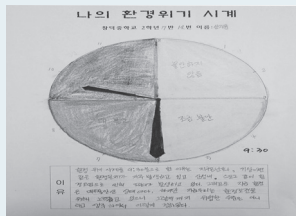
- 녹색성장교육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안, 학습지 40여 종을 개발하였으며 교과 활동 결과 산출물로 수학과 맵거스폰지, 국어과 친환경 시집 등이 있음

2) 녹색성장 관련단원 및 학습내용

교과	이름	관련 단원	녹색성장 학습 내용	목표
국어	김형현	시의 표현	인간과 자연의 교감에 대한 수필쓰기	말하기, 쓰기 활동 중심의 녹색성장 수업으로 녹색 성장에 대한 이해와 말하기, 쓰기 능력 향상
	권영임	독자와 글쓰기	녹색성장 관련 직업 소개 설명문쓰기	
	오현미	독자와 글쓰기	녹색생활 실천사례 및 설득하는 글쓰기	
	류정임	생활 속의 깨달음	녹색생활 실천 수필 쓰기	
	윤라미	글쓰기와 다듬기	일상생활과 지구온난화와의 관계	
	전성유	지각(知覺)	자연의 소중함	
	한정일	살아숨쉬는 것별	환경보호와 경제개발	
수학	문혜령	식의 값 계산	가정생활에서의 탄소배출량 계산하기	환경오염의 원인 및 개선점을 다양하게 탐색
	박미란	도형의 닮음	우유팩을 이용한 맵거스폰지 만들기	
	주재표	문자와 식	이산화탄소 흡수에 필요한 나무의 수	
	최현숙	도수분포그래프	월별 전력소모량(1학년)	
	정수갑	상관표	환경오염과 요인들의 상관관계(3학년)	
사회	박태준	고갈되는 자원	환경의 중요성 깨닫기	환경 문제 및 기후변화와 경제개발 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 수업
	배진희	가뭄과 사막화	사막화 방지협약조사	
	이연화	자원개발과 환경과괴	환경과괴실태 PPT 만들기	
	이상근	고려의 발전	북진정책과 녹색성장정책 비교하기	
	이봉자	환경친화적인 생활태도	지구생태계의 유한성	
과학	윤미경	식물의 광합성	광합성과 CO ₂ 감소	생태계의 중요성, 전기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
	김동기	생물의 진화	생물의 진화와 환경과의 관계	
	박치갑	전기에너지	가정 전기에너지 계산하기	
	이연삼	식물세포의 관찰	숲을 가꾸고 보존하는 방법	
	김동형	전기에너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방법	



〈녹색성장 수학과 수업 장면〉



〈녹색성장 도덕과 학습지〉



〈녹색성장 국어과 결과물〉

나. 녹색성장 재량활동 편성·운영

- 1) 교재 : 녹색성장 재량활동 교재를 학교에서 자체 개발하여 활용
 - 「2009. Eco- Green School 창덕」, 「2010. Green 창덕, Dream 창덕」
- 2) 내용은 1학년 친환경녹색교육, 2학년 친환경경제교육, 3학년 친환경진로교육

- 3) 특성은 동영상 시청, 녹색신문 만들기, 골든벨 등 다양한 활동 중심 편성으로 즐겁게 녹색 성장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녹색성장 특별활동 편성·운영

- 1) 녹색성장 퀴즈왕 대회 ⇨ 녹색성장 의식 함양
 - 창의재량 시간에 학습한 녹색성장 내용을 퀴즈 문제로 제시하여 학급 대표 50명을 선정, 퀴즈왕 대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시상함
- 2) 녹색성장 그린 송 부르기 대회 ⇨ 연습 과정을 통하여 한마음이 되는 경험
 - 기존 노래 가사를 녹색성장 내용으로 개사하여 율동과 함께 학년별·학급별로 발표

♥ 원곡 : 깊은 밤을 날아서	♥ Green song : Cleaning the earth is good for us(1학년6반)
<p>우리를 낭비와 버려지는 많은 쓰레기 어쩌면 옛날부터 습관 같아 어릴 적에 배운 나쁜 습관 고쳐 버리고 옛날 푸르렀던 지구 이야기처럼 약간의 삼푸와 필요한 종이들만 쓰고 세제는 적당량만 사용하자 고운 우리 하루 한 개씩만 쓰레기 줍자 푸른 지굴 만날 수 있어 난 오직 전기코드 뽑았을 뿐인데 많은 전기 절약패 잇을 수 없는 뿌듯한 느낌에 또 한 번 더 녹색에 도전 그리고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쓰지만 CO₂가 배출되는 에어컨 조금 참고 멀리 바라보며 선풍길 틀자 푸른 지구 만날 때까지 난 오직 에어컨을 끄을 뿐인데 많은 녹색 성장패 감감하기만 하던 녹색성장 어느새 눈 앞에 다가왔죠 그러나 우리들 방심은 아직 일러요 세심한 관심들이 필요하죠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벚꽃놀이를 가는 Cleaning the earth is good for us ♪♪</p>	

- 3) 녹색성장 중점과제 발표회 ⇨ 녹색성장 의식 함양 및 자신감, 발표력 신장
 - 학년 초 학급별 녹색성장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중 실천한 후 학급별 실천 내용을 다양한 형식으로 전교생 앞에서 발표



<녹색성장 퀴즈왕 대회>



<그린 송 부르기 대회>



<학급 중점과제 발표대회>

라. 녹색성장 실천 프로그램 편성·운영

- 1) 친환경학급인증제 ⇨ 사제동행의 녹색생활 실천 효과
 - 잔반 없는 날 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제로교실 만들기, 담임 교사 카풀, 세 항목을 점수화하여 분기별로 친환경학급으로 인증, 학급시상
- 2) 탄소가계부 쓰기 ⇨ 학급 전기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큰 효과
 - 학급의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매일 시간 단위로 체크, 전기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월 단위 학급 탄소배출량 계산하여 기록하기

3) 산소 교사 ⇨ 녹색성장교육의 선도교사로서 자질 함양

- ‘BCW (Bus, Carpool, Walking)의 날’ 운영

연 2회 승용차 운행하지 않는 날을 정하고 정병산을 넘어서 퇴근, 차량 운행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역사회 탄소줄이기 홍보활동 실시



〈잔반 없는 날〉



〈탄소가계부〉



〈B.C.W의 날〉

3. 교육 성과

가. 프로그램 운영 결과

Eco- Green School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 녹색성장 인식면 : 학생 78.86%, 교사 92.08%, 학부모 77.19% 긍정적 변화
- 녹색성장 교육면 : 학생 78.00%, 교사 92.54%, 학부모 76.54% 긍정적 변화
- 녹색성장 실천면 : 학생 74.43%, 교사 81.86%, 학부모 78.70% 긍정적 변화

나. 일반화 자료

- 타 학교의 녹색성장 교육에 일반화할 가치가 있는 산출물로 녹색성장 교수· 학습지도안 및 학습지, 친환경학급인증제, 탄소가계부, 녹색성장 재량활동 교재2권 (「2009. Eco-Green School 창덕」, 「2010. Green 창덕, Dream 창덕」)이 있다.



그림책을 활용한 극놀이



김희영
진해유치원 교사

유아 문학의 중요성과 유아 언어발달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언어생활영역에서는 ‘문학 작품 즐겨 듣기’와 ‘이야기 지어 말하기’를 신설하였으며, 유아의 성공적인 문학적 경험을 위해 문학 작품을 경험할 때 통합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그림책을 활용한 극놀이는 유아와 친숙하고 문학적 가치가 있는 주제의 그림책을 매체로 하여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기법을 통한 통합된 활동으로써 유아의 언어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그림책을 활용한 극놀이란?

그림책을 매체로 하여 그림책을 듣고서 유아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에 대해 상호작용하고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활동의 실제

가. 활동주제와 연관된 그림책 선정

활동주제와 연관된 그림책으로 반복의 원리가 글자, 그림,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어 극화하기에 적합하고 대사가 재미있으면서 자유롭게 인물을 삽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등장인물 정하고 대본 새롭게 만들기

유아들이 극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림책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극놀이에 참여할 등장인물과 대본을 새롭게 만든다. 등장인물은 대개 유아들과 친숙한 동물이 정해지며 대사는 등장인물의 특성과 이야기 흐름에 맞추어 간단하고 재미있는 언어로 만든다.

다. 소품 및 노랫말 만들기

극놀이에 필요한 소품을 정한 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응용·활용 하되 유아들이 협동 작업으로 만들거나 극놀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소품은 구입·제작할 수도 있다.

또한 유아들과 친숙한 노래에 노랫말을 개사하여 극놀이 시작이나 진행과정 중에 노래를 다함께 부르면 더욱 즐겁고 신나는 극놀이가 될 수 있다.

라. 역할 정하기

극놀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 유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유아의 개인 성향과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역할을 정한다. 역할이 정해지면 함께 만든 이야기 흐름을 익힐 수 있도록 대본을 교실의 벽면에 게시해준다.

마. 극놀이 시 필요한 약속 정하기

모두가 즐거운 극놀이 활동을 위해서 다함께 약속을 정한다.

약속으로는 등장하기 전에 기다리는 장소와 태도, 등장인물이 되어 대사를 말할 때 목소리 크기, 다른 등장인물이 말할 때 잘 들어주기, 극놀이가 끝난 뒤 소품 정리하기 등이다.

바. 극놀이 하기

극놀이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재료가 준비되면 극놀이를 시작한다. 이때 교사는 해설가로 참여하여 전체적으로 극놀이를 이끌고 격려하며, 극놀이 흐름에 적합한 음향(예: 과도소리, 천둥소리 등)을 사용하여 극놀이의 효과를 더욱 높인다.

등장인물들은 대기하고 있는 곳에서 주제와 연관된 교구 활동이나 놀이를 하며 차례를 기다리고, 극놀이 과정에서 이야기 흐름과 연관된 수수께끼나 문제 맞추기 등의 게임을 하면 더욱 즐거운 연극놀이가 될 수 있다.

사. 활동 평가하기

극놀이를 마친 뒤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것, 다른 유아의 표현에서 재미있었던 것들을 이야기 나눈다.



〈새롭게 대본만들기〉



〈필요한 소품(배) 협동작업〉



〈의상 입고 극놀이 준비하기〉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과학탐구능력 신장



김 현 지
사천 삼천포초등학교 교사

1.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단순히 실험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활동에는 너무나 적극적이지만, 현상을 분석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탐구 활동에는 수동적인 인형이 되어버리고 만다. 과학에서 탐구라는 과정 자체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차원적인 활동이고, 아이들 역시 지금까지 과학의 과정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과학 탐구 활동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생활 속의 과학 현상과 교육내용 간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수업자는 새롭게 과학시간을 디자인 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과학체험활동을 위한 학습 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마인드를 형성하여 과학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과학적인 탐구능력을 신장시키며, 궁극적으로 과학은 우리생활의 친구이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체득시키고자 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이렇게 실천했어요

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과학적인 마인드를 형성한다

1) 과학체험 학습 관련 단위 및 내용 추출

5학년 1, 2학기 교육과정 및 과학 교과서를 분석하여 과학체험 학습 관련 단위 및 내용을 추출하여 지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전문가를 찾아서

화학 전공이신 진주교대 공교수님은 SSC(Small Scale Chemistry)를 소개해 주셨는데 전문가를 찾지 않았으면 듣지 못했을 유익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값이 고가여서 학교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실험재료를 흔쾌히 빌려주셨다.

3) 다양한 실생활 속 과학에 관심 갖기 활동

과학 교과 시간뿐만 아니라 재량 활동 및 아침 활동 시간, 점심시간 또는 가정에서 학생들이 실생활 속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가) 과학교과의 흥미 신장을 위한 탐구활동 전개
- 나) 다양한 글쓰기 및 그리기 활동을 통한 탐구
- 다) ‘탐구 동아리’ 운영

나.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과학적인 탐구능력을 신장한다

1) 과학체험활동 수업 전략 세우기

과학체험 활용 수업 적용을 통하여 다양한 생활 속 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과학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견학습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과학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과학체험 활용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가) 재구성 방향

발견학습모형은 과학과의 탐구 모형 중 과학체험활동 지도가 가장 용이하므로 본 시의 학습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보통 발견학습 단계는 탐색 및 문제파악→자료제시 및 관찰탐색→추가자료제시 및 관찰탐색활동하기→규칙성발견하기로 이루어지나 본 수업자는 과학체험활동의 요소를 파악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과학적 탐구능력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수석교사 및 동학년 연수활동을 통하여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와 사전협의회 수업 공개, 사후 협의회를 통한 피드백이 되도록 하였다.

나) 발견학습 모형에 과학체험활동 적용(6학년 1학기 2. 용액의 성질 5/8차시)

본 수업자는 이번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과학과가 암기과목이 아닌 탐구 중심의 ‘재미있는 교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2학기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 중 과학체험활동 요소가 많은 ‘용액의 성질’ 단원을 선택하였다.

본 차시는 2시간을 이어서 하는 수업의 뒷부분을 공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므로, 학습동기유발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있는 탐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시간에 지시약을 만드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여주고 어떠한 공부를 하게 될 것인지 미호의 사이다 그림으로 힌트를 주면서 수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활동1 <원리속속>에서는 학생스스로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으로 용액의 성질알기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교사주도의 시범실험을 줄이고 모둠별 활동으로 계획하였으며,

활동2 <발견속속>에서는 추가자료를 제시하여 원리를 적용하고 규칙발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시약으로 용액의 성질을 알아보고, 규칙을 발견하게 하였다. 좀 색다른 반응이 나오는 BTB용액을 제시하여 산성에서는 노랗게 염기성

에서는 붉게 변하는 것을 탐구해 봄으로써 모든 용액이 산성에서는 붉게, 염기성에서는 푸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탐구하도록 하였다.

2) 과학체험활동의 적용을 위한 박람회 활동

가) 박람회 활동

협동학습의 전시장 구조를 벤치마킹한 박람회 활동은 여러 가지 과학박람회 활동 중 자신이 체험하고 싶은 코너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습내용은 본시에서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구성하였다.

나) 실험결과 토의

선택한 코너에서 실험결과를 토의하여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상호 활동을 평가한 후, 토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운영하였다.

다) 박람회 활동 탐구자료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생활속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체험활동을 구성하였으며 자료를 구하는 데 있어 전문가 자문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

3. 내일을 펼칠 아이들을 향해서

과학전담을 맡게 되면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과학에 대해서도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험결과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진행을 할까?’ 하는 고민을 했었다.

그러던 중 과학체험활동을 적용하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 과학탐구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은 때로는 교사에게는 힘이 드는 작업이다. 자료를 찾아야 하고, 사전실험을 해야하고…….

하지만 과학에 흥미를 잃었던 아이들에게 과학과목이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연구 활동이었다.

이들이 다음 학년 그 다음 학년이 되었을 때에도 과학은 매우 흥미있고 재미있으며 결코 어렵지만은 않은 교과라는 생각을 계속 갖기를 바란다. 배경지식으로 공부했던 미래의 아인슈타인, 뉴턴, 퀴리부인이 우리아이들 속에서 많이 나올 것이라 기대해 보며 20년후, 전 세계를 누비며 창의적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본다.

창의력과 사고력 신장? 독서수업이 해답!



이 인 선
통영 죽림초등학교 교사

우리는 독서가 가져다주는 많은 선물을 잘 알고 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독서 행사의 실시로 독서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지만, 책을 읽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책 읽기만을 강요하는 이러한 독서교육은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어휘력, 창의력, 사고력, 표현력 등의 신장에 그리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수업 속에서 독서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때, 교사와 더불어 책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갈 때, 수업 속에서 얻어진 독서 경험이 마중물이 되어 자기 주도적 독서활동으로 이어질 때, 독서의 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1. 독서와 국어수업의 행복한 만남 - 교과 연계 독서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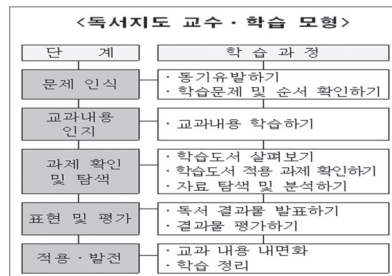
교과 연계 독서수업은 교과서에 내용이 일부 수록된 도서나 학습 내용과 관련된 도서를 연계 하여 학습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한 단계 더 심화된 활동으로 책 속에 담긴 보다 깊은 얹에 접근하는 수업이다.

가. 학급 독서 환경조성 및 독서기록장 활용

학급 전체 학생이 필요한 학습도서를 짧은 시간 읽고 독서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독·권장도서를 골고루 갖춘 학급문고의 운영이 필요하며, 읽은 책에 대한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독서기록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나. 독서지도 교수·학습 모형

교과 연계 독서지도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적합한 학습도서를 선정하고, 학습주제와 연관 지어 독서지도 내용을 추출하여야 한다. 독서수업모형 8가지¹⁾를 참고하여 구안한 독서지도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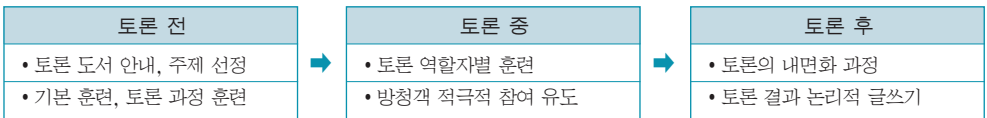
1) 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2004-24), 도서관 활용수업의 길잡이

다. 교과연계 독서수업 운영 예시(4학년 국어과)





단원	학습목표	학습도서	활동 내용	수업 모습
1. 생생한 느낌 그대로 (듣·말·쓰 5/6)	책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다.	홍길동 전	- 그림 이야기 요약하기 - 글을 구성하는 인물, 사건, 배경 요소에 대하여 집중 탐구하기	
7. 넓은 세상 많은 이야기 (듣·말·쓰 1/6)	그림책의 구성원리와 특징을 알고 감상할 수 있다.	길아저씨 손아저씨 외 1권	- 교육연극으로 인물의 생각과 느낌 이해하기 - 동화를 그림책으로 바꾸기	

2. 생각이 자라는 독서토론수업

독서토론은 논리적 생각을 키우고, 책 읽는 습관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성공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듣기·의견 제시 방법 등의 기본 훈련, 토론 역할 및 과정에 대한 토론 훈련, 토론도서에 대한 꼼꼼한 독서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 독서토론수업 운영 예시

토론 도서	토론 주제	토론 주요 활동	토론 모습
	아깁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방법은 옳은가?	-창의적 토론 기법 (PMI) -전체 대표자 토론	
	나쁜 어린이표를 주는 것은 옳은가?	-창의적 토론 기법 (마인드맵) -전체 대표자 토론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수업에 몰입하는 장면은 보는 이에게는 감동을 느끼게 하며,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희열과 보람을 가져다준다. 지난 몇 년간 책과 함께 운영한 독서수업에서 학생들의 눈이 유독 반짝이며, 눈에 띄는 성장을 거듭하는 가슴 뭉클한 경험을 계속해오고 있다. 교사의 노력과 배려 속에 이루어지는 독서수업이 학생들에게는 평생의 학습능력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운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활용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FAQ)

NEIS

차세대 나이스가 3월 1일 정식으로 개통 된지 십여 일이 지났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곳에서 패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많은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예견된 일이라 사전에 시범운영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한 부분에서 운영의 미비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안정화 되어 간다는 점에 안도감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호에서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자주 문의해 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형식을 빌어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F

교무업무시스템에서는 편제 및 시간배당에서 특별활동 등록이 한꺼번에 등록이 가능했는데, 차세대 나이스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및 특별활동이 하위 편제로만 작성이 되고 한꺼번에 왜 등록이 안 되는가요?

Q

차세대나이스 시스템에서는 정확한 연간 시수 산출을 위해 실제 수업으로 편성된 시간표를 작성하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특별활동을 전체로 넣기 보다는 실제로 하위편제로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초시간표를 작성하여 연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입력방법은 우선 기초 시간표를

작성한 후 기초 시간표를 검증 및 반영을 하고 반별시간표에서 주별로 조회를 하여 특별활동을 하위 편제별로 바꾸어서 넣어 주어야 됩니다.

F 외국에서 살다가 본교 3학년으로 4월 17일자로 들어온 아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1. 국내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경우
추가취학/입력누락자 등록에서 해당 학생을 취학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3학년으로 등록하시면 해당학생은 3학년부터 학적이 생기며 1, 2학년 내역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2. 본교에서 다니다가 외국 유학 후 다시 본교에 온 경우
학적 - 전입관리 - 전입학/편입학/재입학 - 편입학(본교) 새로운 학년 반에 등록하시고 학적 반영합니다. 본교에서 편입학(본교)으로 등록할 때 학생 찾기가 안되는 경우는 본교에서 제적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본교에서 다니다가 외국 유학 후 타교로 들어온 경우
타교에서 편입학(타학교)으로 등록하고 본교로 송부요청을 하면 본교 학적 - 전출 관리 - 전출 메뉴에 요청사항이 보입니다. 본교에서는 학생의 자료를 송부만 해주시면 되며 타교에서는 학생의 자료를 받아 학적반영 해주시면 됩니다. 타교에서 편입학(타학교)으로 등록할 때 학생 찾기가 안되는 경우는 본교에서 제적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장학월보 2010년 9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 우리 학교 11월 달 출결 일수를 등록한 결과 11월 학사일정 검색에서는 25일로 뜨는데, 각 학급의 출석일수는 26일로 뜨고 있습니다. 토요휴업일 이외의 행사일정은 없으며 토요휴업일은 휴업일로 분명히 기재했습니다. 월별 마감도 모두 취소해서 확인했습니다.

Q 학사일정에는 맞게 나오지만 출결부분만 수업일수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는 휴업일에 행사를 잡을 경우 발생합니다. 찾는 법은 일단 휴일에 행사가 입력된 날을 찾습니다.(토요휴업일에 다른 행사가 잡힌 경우도 포함)
그 행사를 [학사일정관리-연/월간 학사일정-학교행사등록]에서 찾고 휴업

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휴일에 잡힌 행사중에 휴업일로 지정되지 않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F

졸업식에 5, 6학년만 참석을 하게 되어 [학사일정관리-연간학사일정관리]에서 졸업식에 대한 적용 학년을 5, 6학년으로 지정했습니다. 반별시간표에서 졸업식에 대해 행사처리를 하게 되면 5, 6학년만 행사활동에 잡히게 되어 나머지 학년인 1~4학년은 행사활동은 잡히지 않으나 수업일수는 잡히게 됩니다. 1~4학년이 수업일수에 미포함 하려고 행사코드를 하나 더 등록하려 하니 추가등록이 안됩니다.

Q

[학사일정관리-연/월간학사일정-학교행사등록]에서 동일한 행사명으로 2개 이상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5, 6학년에 적용될 '졸업식'이라는 행사명을 기등록 했다면 행사코드관리에서 같은 행사명은 등록되지 않으니 예를 들어 '6학년 졸업식' 과 같이 다른 행사명으로 행사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 연간학사 일정관리에서 등록합니다. 이때 '수업공제일'은 휴업일, '학생부특별활동반영여부'는 미반영으로 하여 등록하시고 시간표 반영하시면 됩니다.

F

[담임편성및교과개설-담임교사편성]에서 이력추가와 오류수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이력추가'는 학기 중 담임이 변경될 경우 해당이력을 학년이력에 남기고 자할 경우 사용하고, '오류수정'은 담임을 잘못 등록한 경우 해당이력을 학년이력에 남기지 않고자할 경우 사용합니다.

즉, 담임을 A에서 B로 변경하고 이력추가를 선택 저장하면 학생부의 담임이 A, B로 두 줄이 입력되고, 오류수정을 선택 저장하면 학생부에 B만 입력됩니다.

농어촌 지역 환경을 활용한 천해지인교육



이재우

거제 외간초등학교 교장

들어가며

본교는 거제시 거제면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전교생 60명이 안되는 작은 학교이지만, 5년 전부터 학교 주변의 환경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2010학년부터 ‘천해지인교육(하늘·바다·땅·사람 사랑 교육)’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편성·운영하고, 총동창회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거제 시내의 학생들이 전학을 오고 있으며,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과 문의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학교 들여다 보기

본교 학생들은 수학 교과의 성취율과 문화 사회적인 경험이 적어 사회 교과 성취율이 다소 낮고 통학 거리가 멀어 인근초등학교 통학버스와 동창회 지원을 받은 마을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의 관심이 적은 학생들이 많아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학교와 학교 인근의 체육 시설 부족과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영과 스키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편이다.

학부모들은 학교 활동에 관심이 있었으나 참여가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2010학년도에는 학부모회 구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매월 학부모회 운영, 각종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연 문화적 환경은 시 중심지와 면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공공 문화 시설이 없으며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다. 자연 환경으로는 간덕천, 계룡산, 산방산, 남해 바다, 갯벌 등 주변에 다양한 자연 환경이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개발원, 솔향 노인병원, 스포츠 파크, 곤충 농장 등 학교 주변에 활용 시설이 있고, 거제면과 이웃하여 보건지소, 소방지서, 경찰지구대 등 기관 활용이 가능하다.

01



02



03



01 2010 대전 전주 도시 체험(중앙과학관)

02 경남영어대회장면 입상 모습

03 김장체험활동

〈하늘·바다·땅·사람 사랑 교육〉 천해지인교육 운영

〈하늘·바다·땅·사람 사랑 교육〉인 천해지인교육은 2005년부터 학교 통폐합이 거론되면서 2008년부터 학교와 동창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학교 살리기 운동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천해지인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학부모와의 간담회 및 학부모 설명회,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다.

천해지인교육은 농어촌 특성을 살린 체험 교육을 통해 땅의 소중함과 실천적 지식을 체득하여 학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환경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개발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사람됨 교육을 통해 덕성 교육의 기본 바탕을 마련하고, 문화 환경 체험교육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높여 장기적인 학교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천해지인 교육은 교과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고, 창의적 재량활동으로도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 전체형과 학년형으로 구분하고, 작은 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토요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계절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였다.

[천해지인 교육] 영역별 주요 내용

영역	활동 내용	
1. 하늘 사랑 교육	가. 전체 관측 활동 다. 철새 관측 활동	나. 전문대 견학 활동 라. 곤충 기르기 탐구활동
2. 바다 사랑 교육	가. 갯벌 탐사 다. 전통 낚시 체험하기 마. 해양 체험 활동(야영)	나. 굴 양식 및 활용 교육 라. 바다 보호 활동
3. 땅 사랑 교육	가. 텃밭 재배 활동 다. 들꽃 관찰 및 가꾸기 활동 마. 숲 체험 교육 활동 사. 여름 겨울 체험 학습	나. 벼농사 체험 활동 라. 들길 걷기 활동 바. 봄가를 현장 체험 학습
4. 인간 사랑 교육	가. 솔향 위문 공연 봉사 활동 다. 어버이날 행사 마. 거제 충혼탑 참배 및 정화 활동 습	나. 노인 회관 봉사 활동 라. 산촌 유학 교육원 입소

‘천해지인 교육’은 학부모와 총동창회 등의 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다.

학부모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 정책에 따라 학부모회를 구성하여 매월 학부모회 정기 모임을 가지고 교내의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학부모들은 숙개기와 모내기 활동, 감자 및 고구마 수확, 요리 활동 심사 위원 등의 토요 체험활동, 학교 운영위원회 참가 및 활동, 거제시 초·중고 체육대회 지원, 외간 슬기 한마당(학예회)에서 학예회 참가 아동 준비 지도와 학부모 울동 발표, 배추 절이고 씻는 김장 체험 활동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총동창회에서는 매년 졸업생 전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학년도에는



04



05



06

04 눈썰매 스키

05 솔향위문 공연

06 솔밭 모리밭 피구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풍물복 구입, 김장 체험 활동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동창회와 함께하는 운동회’를 공동 개최하였으며, 무지개 연필을 형상화한 학교 안내 구조물을 설치하여 학교 홍보에도 지원을 하였다. 또한 통학거리가 먼 후배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다.

거두어 들인 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천해지인 교육’ 교육과정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으며, 체계적인 편성과 운영이 이루어져 교육적 성과가 높다. 땅 사랑 교육으로 학교 텃밭을 활용해 2010학년도에는 1년간 농작물 12종을 파종하여 수확 체험과 수확물을 이용한 요리 활동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농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동과 수확의 의미를 높이게 되었다. 지역 환경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개발하여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학생들은 학교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다. 인간 사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2011학년도에는 청소년 단체와 희망자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문화 환경 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결과로 경남 영어 연극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고, 거제 풍물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입상하였다. 또한 학기 초 개인의 지능을 나누어 검사하는 다중 지능 검사에서 문화 지수와 자연 지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알 수 있다.

올해 20명이 넘는 학부모와 학생이 ‘천해지인 교육’을 선택해 입학 또는 전학을 왔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은 2009학년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제로 학교, 학력우수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10학년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결과를 얻었다.

미래 내려다 보기

본교 주변에는 거제시 스포츠 파크가 건설되고 있으며, 두 개의 터널 개통이 진행되고 있어 발전 전망이 아주 높은 편이다. 또한 2014년에 골프장 건설로 인한 다세대 주택의 건설로 전교생 200여 명 정도의 학교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에 통폐합을 넘어 미래를 담은 교육을 위해 ‘천해지인 교육’의 체계를 갖추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통학버스와 체험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버스의 확보 등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 발전 협의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활성화, 동창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등 교육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실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07 재첩 체험

08, 09 총혼탐 정화활동 및 참배



박 영 은
의령 화정초등학교 교사

‘화정으뜸제’로 미래의 소중한 꿈을 키워가는 작지만 옹골찬 화정초등학교!



01



02



03

I. 들어가며

하나! 둘! 하나! 둘!

즐거움 동요가 방송을 타고 운동장 가득 울려 퍼지고 아이들의 힘찬 구령소리가 그에 더해진다. 의령의 작은 시골학교, 화정초등학교의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걸어서 학교로 오는 아이들,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교하는 아이들 모두 하루의 시작을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아침에 등교를 하자마자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고, 대뇌활동력이 20% 이상 증가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화정초등학교의 특색활동으로 실시되는 ‘화정으뜸제’의 건강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II. ‘화정으뜸제’란?

‘화정으뜸제’는 국제인, 건강인, 예술인, 독서인의 총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평소 영어·한자 교육활동, 체육활동, 음악활동, 독서활동을 아침활동 시간, 특색교육활동 시간, 방과후학교 시간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화정으뜸제를 통하여 틈틈이 익힌 다양한 기능과 재능들을 토요일 발표조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 앞에서 선보이기도 한다.

1. 어떤 활동을 할까요?

항 목	활 동 내 용	평 가 요 소	
독서인 -책 읽는 학교-	독서력 향상을 위한 활동	• 독서량 • 대외 실적	• 독서기록 • 학부모 독서기록
국제인 -함께 하는 학교-	영어, 한자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 특색활동(펜,방송) • 필수한자 익히기	• 영어 관련 행사 • 대외 실적
예술인 -노래하는 학교-	합창·합주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 합창능력 • 사물놀이	• 합주능력 • 건반악기 • 현악기
건강인 -운동하는 학교-	체력 향상 과 내 고장 사랑을 위한 활동	• 달리기 • 배드민턴	• 줄넘기 • 등산

- 01 독서 발표대회
- 02 권장도서, 필독도서 읽기
- 03 화정 으뜸제 학습장

2. 언제 할까요?

항 목	요일 별 활 동						비 고
	월	화	수	목	금	토	
독서인		아침 방과후					• 도서대출 - 주 중 점심시간, 토요일 방과후
국제인				아침 방과후	(아침)		• 영어 - 세이펜 활용 • 한자 - 필수한자
예술인	방과후	방과후	아침 방과후				• 합창 • 합주 - 건반악기, 현악기 • 사물놀이
건강인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 달리기- 매일 아침(전교생) • 줄넘기- 1학기(전교생) • 배드민턴- 2학기(전교생)

Ⅲ. 화정으뜸제! 알찬 활동 내용

1. 독서인 - 책 읽는 학교

학년별 필독도서를 선정하여 학급문고에 비치하고 항상 책을 읽으며 독서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독서를 통하여 삶의 즐거움, 지혜를 얻는 깨달음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 주말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게 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에서 독서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책을 읽고 나서는 화정으뜸제 학습장에 간단한 독서감상문을 적도록 한다.

2. 국제인 - 함께 하는 학교

학년별, 단계별로 필수 영어단어와 영어노래를 익히게 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국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개인별 수준별 한자를 익혀 생활 속에서 활용하며 전교생이 1년에 1회 이상 한자능력인증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3. 예술인 - 노래하는 학교

농촌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음악 실기와 기능 중심의 음악교육에 중점을 두며 아름다운 동요를 부르고 리코더 및 건반악기를 비롯하여 바이올린, 첼로와 같은 현악기 연주 기회를 제공하며, 신명나는 우리가락을 사물놀이를 통하여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04 사자소학 발표

05 영어 스피치

06 리코더 연주

4. 건강인 - 운동하는 학교

매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운동장을 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화정어린이는 줄넘기와 배드민턴을 함으로써 튼튼한 체력을 기르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으며,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등산기회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화정어린이로 자라도록 한다.

IV. 나오며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화정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정으뜸제’는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안에 녹아들어 학생들이 평소 학교생활을 하는 중에 다양한 기능과 재능을 익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늘도 꾸준히 노력 중이다.



07



08



09



07 피아노 연주

08 줄넘기

09 아침 달리기

함께 즐기고, 함께 이야기 하며, 함께 느끼는 교실 속 인성교육



왕 주 은

진해 안골포초등학교 교사

I. 혼자가 편한 아이들

모둠별로 작품을 만드는 미술시간, 활동 시켜놓고 보니 여기저기서 티격태격이다. “무슨 일이야?” 하고 다가가 보면 항상 아이들의 불만은 똑같다. 활동을 주도하는 쪽 부러진 아이들은 대부분 불멘소리로 “애는 참여는 안하고 장난만 쳐요” “애는 도움이 안돼요” 이에 발끈하는 또 다른 불만, “내가 하는 건 이상하다고 하지 말래요”

휴..... 가슴이 답답하다. 가위질을 잘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색칠을 잘 하는 아이가 있고, 뒤에서 묵묵히 정리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왜 모를까?

우리 반 32명 중에 형제가 없는 아이, 즉 외동딸, 외동아들이 14명이나 된다. 거의 반인 셈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형제가 많은 아이들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는 일에 익숙한 것 같다. 반대로 생각하면 형제가 없는 아이들일수록 서로 양보할 기회, 도와줄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게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교실에 와서도 당연히 친구와 부딪힐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II. 함께 해 보기

1. 함께 즐기다 - 게임으로 경험하는 인성 가치의 의미

▶ 가위바위보 게임 (신뢰)

- ① 남녀 팀을 나누어 각 팀의 대표끼리 총 5번의 가위바위보를 한다.
- ② 가위를 내어서 이기면 10점, 바위를 내어서 이기면 20점, 보를 내어서 이기면 30점, 가위, 바위, 보로 비긴 경우 양쪽 모두 각각 15점, 30점, 0점을 받게 된다.
- ③ 5번에 걸쳐 경기한 뒤 합계를 낸다.
 - ☞ 처음에 아이들은 이기기 위하여 머리를 쓰지만, 서로를 신뢰한다면 바위를 내어 서로 좋은 점수를 얻게 됨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 글자 자르기 게임 (공익과 희생)

- ① 그림 1과 같은 글자를 모둠별로 준비하고,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게 한다. (배경을 미리 조각내 둔다)

- ② 자르다가 조각이 생기면 본인이 가져야 한다.
- ③ 한번의 기회당 한사람이 가위질을 할 수 있으며, 가장 적은 기회로 다 자른 모듬이 승리한다.
- ④ 그러나 그 모듬에서 잘린 바탕조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벌점을 받게 된다.
 - ☞ 모듬이 이기려면 가위질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하고, 내가 이기려면 되도록 적게 가위질을 해야 한다. 아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공익 뒤에는 개인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 로또 게임 (정직)

- ① 모듬당 1~8까지의 숫자가 적힌 쪽지가 담긴 주머니를 준비한다.
- ② 돌아가면서 한 개의 숫자를 뽑아 자기만 본다. (확인한 후 쪽지 다시 넣기)
- ③ 교사는 큰 상품을 걸고, 행운의 번호 9를 부른다.(그러나 9가 적힌 쪽지는 없으므로 당첨된 아이는 없다.)
- ④ 다시 주머니에서 두 개씩 쪽지를 꺼내어 본인만 확인하게 한다.
- ⑤ 교사는 행운의 번호 2개를 부르되 9를 넣어 부른다. (역시 당첨된 아이는 없다.)
- ⑥ 마찬가지로 세 자리까지 한다. 역시 행운의 번호에 9를 넣는다.
 - ☞ 아이들의 정직한 인성을 볼 수 있는 게임이다. 당첨되었다고 말하는 아이가 있다면 정직하지 못하지만 모른 체 하고 선물을 준다. 그 후 선생님이 부른 숫자 가운데 주머니에 없는 숫자가 있었다는 것을 본인에게만 살짝 알려준다. 당첨된 아이가 없다면 공개적으로 9는 없는 번호였으며, 이렇게 정직한 우리 반을 테스트 해본 것에 대해 칭찬 가득한 사과를 한다.

2. 함께 이야기하다 - 인성 평가

우리 반은 금요일마다 일주일간 서로의 생활을 평가한다. ① 모듬원들에게 빈 쪽지를 넉넉히 준다. ② 인성항목에 특히 생각나는 사람과 그의 점수를 무기명으로 적어 낸다. (예: 봉사, 홍길동, 2점) ③ 나온 결과를 자기 점점포(그림2)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각자가 생각해 본다.

- ☞ 만약 그 주에 크게 다투며 욕을 썼다면 욕하지 않기 부분에서 점수가 낮을 테고, 아이는 그것을 반성하게 된다. 반면에 봉사를 잘하거나 남을 배려한 아이에 대해 친구들은 분명히 느끼게 되고 이것은 평가에 반영되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눈은 선생님보다 정확하니 말이다.

3. 함께 느끼다 - 일기를 통한 반성의 시간

우리가 한 활동들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모두 일기장에 기록한다. 집에 가서 조용히 떠올려 본다면 분명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옳지 않은 일은 반성하게 될 것이며, 잘한 행동을 뿌듯해 하며 자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이다.

III. 달라진 아이들

점심시간, 뒷정리를 빠리한 모둠부터 줄을 세우니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빨리하라고 서로를 재촉하던 아이들이 서로 치워주고 있는 것이다. “네가 느려서 우리 모둠이 뒤에 서잖아!” 가 아닌, “우리가 해주면 빨리 설 수 있어!” 라고 외치며.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 이야기들 하지만 어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변화하고, 이를 발견하며 오늘도 난 미소를 띤다.

(그림 1)



(그림 2)

0 0 이의 인성 카드 (예시)

점수	-3	-2	-1	0	1	2	3
인성가치							
1. 정직	√						
2. 육안쓰기			√				
3. 봉사							
4. 이해						√	

◎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 그날의 반성을 일기에 기록합시다.

가족(지역)과 함께 하는 밤샘독서캠프 -부모, 아이, 우리는 가족입니다-



김영환

거제 수월중학교 교사



‘도민과 함께 하는 독서 운동’, ‘책 읽는 학교’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심차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독서의 생활화’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구들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적 문제 때문에 형식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이 많을 것입니다. 나 역시 그렇게 발만 담그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정책이라고 나 자신을 정당화하면서도 너무 실적 위주의 결과를 바라기에 어쩔 수 없는 책임감으로 진정성 없는 교육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실질적 효과가 없었던 독서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재미있고 의미 있으며 실속 있는 독서 교육의 방향을 우리 학교에서 실시한 ‘가족(지역)과 함께 하는 밤샘독서캠프’를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교 도서실, 시청각실, 운동장에서 2011년 2월 11일 금요일 늦은 5시 30분 ‘가족(지역)과 함께 하는 밤샘독서캠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시작은 교장선생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본 행사인 독후감상 발표 및 토론은 ‘부모, 아이, 우리는 가족입니다’라는 주제로 『내 아이와의 두 번째 만남』(홍진표·박수빈 지음, 2010)이라는 도서를 안내하였고, 선독서를 하도록 홍보 및 과제제시를 하였습니다. 요즘의 우리 가족(가정)을 볼 때 가족(정)의 결핍 요소가 대화, 서로에 대한 이해 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아이는 자연발생적 관계입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무관심, 소외 등의 상처가 생겼다고 봅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적은 요즘의 상황에서는 더 많은 상처가 존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부모와 아이라는 자연발생적 관계이기에 서로에 대한 마음을 모두 알 것이고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무책임과 안일함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관계, 좀 더 많은 경험을 한 인생의 선배와 그 선배의 뒤를 따르는 후배의 관계로 부모와 아이를 만나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200여 명이 작은 도서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며 설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신설학교라 도서실에 방송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

01, 02, 03 독후발표토론

었습니다만 진행 부분에서 오히려 기계의 소리가 아니라 자연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목소리가 더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었습니다.

진행은 먼저 본 행사의 주제와 관련한 4~5분 분량의 동영상 2편(EBS 지식e채널)을 보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본 행사의 주제 속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제시 및 설명을 하였습니다. 도서 선정의 이유도 말하였습니다. 이제 서야 본 행사의 의미를 아는 듯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서로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 하나씩을 적어 학부모 상자와 학생 상자에 구분하여 담았습니다. 2부 행사 시작 첫 순서로 추첨을 통해 학생의 질문에는 학부모가, 학부모의 질문에는 학생이 답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책 속 큰 제목 순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큰 제목과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자가 설문 조사 및 질문을 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자유롭게 발언권을 얻어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생각, 부모에 대한 아이의 생각, 아이를 믿어주고 믿어주며 안내하는 부모, 자신의 품 안에서 아직은 걱정과 불안으로 감싸고 있는 부모, 부모의 생각을 존중하고 잘 따르는 아이, 부모의 가치와 다른 자신과 생각을 말하며 울먹이는 아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들어주고 이해하는 모습에서 ‘아! 이런 과정이 독서교육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것으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으로는 감히 볼 수 없는 진정한 독후활동의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저러 흐른 독후 감상 발표 및 토론의 마무리 시간. 발표와 토론의 과정에서 느낀 독서교육의 긍정이 자아도취였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불안감으로 학생과 학부모 참석자를 대상으로 본 행사에 대한 느낌을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썼습니다. 밤샘독서라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평가가 좋았습니다. 더더욱 뜻 깊었던 내용은 부모님과 함께 한 시간의 가치, 내 아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었습니다. 가족(가정)과 함께 하는 밤샘독서캠프 평가회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도 있었지만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학교 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다고 볼 때 이번 행사는 아버지들을 학교 사회로 끌어들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학교는 2011학년도부터 아버지들의 모임(가칭 ‘아버지회’)을



04, 05, 06 독후발표토론

만들어 운영 계획 중입니다.

밤샘독서캠프라면 그 의미 그대로 밤을 새어 독서 관련 행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게 운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상남도 과학연수원 협조의 천체관측, 카이스트 입학사정관제 실무 담당자(강선홍 박사)의 입학사정관제 설명회, 영화감상등이었습니다.

밤샘독서캠프라는 교장선생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행사를 통해 긍정적·부정적 모습들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올해도 본 행사를 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키고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분명 독서교육의 답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 눈으로 뭔가를 확인하려고 했을까? 왜 아이들을 재촉하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지도했을까? 많은 반성을 하는 뜻 깊은 행사이자 독서교육의 길잡이였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고 서로의 마음을 느끼며 서로를 알아가는 진정한 삶의 현장. 가족(가정)과 함께 하는 밤샘독서캠프.



07 입학사정관제 설명회

08, 09 천체관측

Leader를 키우는 Readership 프로그램 - '독(讀)하게 여는 아침'-



신진용
창원 봉림고등학교 교장

1. 시작하며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에게는 어떤 리더십이 요구되는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올바른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 요소이다. 본교는 '모든 길은 책으로 통한다.'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독(多讀)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범도민적 차원의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다. 본교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체계적인 학교 독서 교육을 통하여 독서 활동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고, 읽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쓰고, 실천하는' 통합적인 독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2. 펼치며

실천과제	내 용
독(讀)하게 여는 아침	- 아침 30분 책읽기(7:50~8:20) - 사제동행 책읽기 - 필독 도서 목록, 신간 정보 제공
학급문고 설치, 운영	- 학급문고 설치 - 도서관 책(30권), 개인기증도서로 구성 - 학급도서도우미 운영 - 학년 전체 돌려보기
독서기록장 제작, 활용	- 독서 후 활동으로 권장 - 개인별 포트폴리오로 활용 - '독서활동상황란' 기재
도서관 활용	- 자기주도적 학습과 독서 활동의 장 - 독서 관련 학예 행사 실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활동-자율적 특색 활동(독서) - 교과활동 : 교과시간을 활용한 독서 활동
진로지도와 연계한 독서교육	- 창의적 체험활동 : 진로활동(진로와 직업) - 독서 활동을 활용한 진로 상담 - 진로관련 도서 전시회
독서·토론·논술 동아리	- 독서·토론·논술동아리 활동 지원 - 교직원 독서동아리 권장
외부와 연계한 독서프로그램	- 인근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 지방자치단체 독서지원 프로그램 활용

01



02



03



01, 02, 03 독(讀)하게 여는 아침

가. ‘독(讀)하게 여는 아침’ (아침 30분 책임기 시간 확보)

책임기를 생활화하고 책 읽는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학생과 교사가 같은 시간대(7:50~8:20, 30분간)에 ‘사제동행 독서 시간-독(讀)하게 여는 아침’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을 비롯한 각 반의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독서의 모범을 보이고,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사제 간의 거리가 줄어들었다. 관련부서(교육연구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독서목록을 제공하고 책 선택은 학생 자율에 맡기되 도서관 책이나 학급 도서, 개인 책 모두 가능하며 하루 30분 이상 1주일 1권 이상 수준에 맞는 책임기가 되도록 하였다.

나. 학급문고 설치·운영

도서관 책과 개인 기증도서로 학급 서가를 꾸미고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독서 친화적인 분위기를 구성하였다. 반마다 학급도서도우미를 두어 학생들의 독서를 돕도록 하였으며 한 달 동안 학급문고를 읽고 나면 옆 반과 바꾸어 보도록 하여 1년 동안 학년 전체가 돌려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 독서기록장 제작·활용

독후활동은 부담되지 않도록 학생의 자율에 맡기되 독서기록장을 제작하여 배부하면서 이를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독서기록장을 개인별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도록 하며, 1·2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 시간의 독서 후 활동으로, 3학년은 대학입시사정관계 전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과담당교사나 담임교사는 독서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독서기록장을 점검하여 ‘독서활동상황란’에 기재하도록 한다.

라. 학교 도서관 활용

자기주도적 학습과 독서 활동의 장으로 독서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폭넓은 교양 함양과 정서 순화를 통한 평생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다. <세계 책의 날 책갈피 만들기>, <독서퀴즈대회>, <다독자, 다독반 시상> 등의 매월 독서 관련 학예 행사를 실시하여 학생들과 함께 하는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마.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 활동 - 창의적 특색활동(독서)’을 통해 하나의 큰 주제 아래, 주별로 주제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독서한 후 적절한 독후 활동을 통하여 독서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교과시간에 책임기 활동을 하고 독서기록장을 활용한 독후 활동을 하며 이를 점검한 내용은 ‘교과별 독서활동’으로 기록하며,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독서활동 및 독서 후 토론 활동을 하여 사고력과 탐구력을 기른다. 막연히 추천 도서 목록을 제시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서 수업 시간을 통하여 올바른 책임기를 안내하고, 체계적인 프로

04



05



06



- 04 학급문고
- 05 학급도서관리대장
- 06 독서기록장

그랩을 통한 여러 분야의 책을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바. 진로지도와 연계한 독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 진로와 직업시간’에 진로탐색에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선정하고 목록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진로탐색활동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육연구부에서 권장도서목록을 배부할 때 진로와 관련된 도서목록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가 진로 관련 상담을 할 때 희망 진로와 관련된 책을 소개하고 독서활동이 이뤄지게 한 다음 독후활동(독서감상문 등)을 통해 진로 상담에 도움을 준다. 또 도서관 행사 중 진로의 달 (5월)에 진로관련 도서를 전시하여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주고 진로 탐색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는 자료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독서·토론·논술 동아리

학생들의 독서·토론·논술동아리 활동(독서·토론 동아리 ‘신나는 독서여행’, ‘아카시아’, 토론 동아리 ‘영화와 논술’, ‘시사토론·문화 연구반’, 과학 토론 동아리 ‘과학 독서 토론 탐구반’)을 지원하고 교직원의 독서 동아리를 권장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한다.

아.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프로그램

도서관 소식지를 통하여 인근도서관(창원 관내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를 안내하고 ‘인근 도서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 하는 독서 관련 행사에 희망자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맺으며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공감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초등학교때는 비교적 독서를 많이 하던 학생도 상급생이 될수록 학교 공부와 사교육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게임 등에 빠져 책읽기를 소홀히 한다. 본교는 올바른 청소년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창의력,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아침 독서 운동 및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정규 교육과정 및 진로교육과 연계된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학교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인성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07



08



09



07 독서·토론 동아리

08 진로 지도와 연계한 독서교육

09 도서관 신간 안내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전략



변 경 오

한국학습클리닉창원센터 소장

나무를 하려면 도끼부터 갈아라

옛날에 ‘김’이라는 나무꾼과 ‘이’라는 나무꾼이 살았다. 두 사람 모두 부지런하고 착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나무를 하러 산을 오르면, ‘김’ 나무꾼은 8시간을 열심히 일해야 지계에 가득 나무를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나무꾼은 매번 5시간이면 지계를 가득 채우고 먼저 내려오는 것이었다. ‘김’ 나무꾼은 ‘이’ 나무꾼과 같이 내려가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도저히 ‘이’ 나무꾼을 따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나무꾼이 ‘이’ 나무꾼에게 가서 물었다. ‘자네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항상 나보다 먼저 끝내고 내려가는가? 그 비결을 나에게 알려주게’ 라고 하였다. ‘이’ 나무꾼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무를 하기 전 매일 1시간씩 도끼를 간다네’ 라고 알려주었다.

흔히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한다.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정 주어진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위의 예화에서처럼 주어진 시간에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습클리닉센터에 의뢰된 아이들의 특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데 노력만큼 결과가 없다’ 라는 것이다. 성적이 공부한 시간에 비례해서 나온다면 얼마나 공평할까? 하지만, 이제는 공부를 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세우기

모든 일을 시작하는데 무작정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일을 하기위해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부를 하는데도 무작정 책상에 앉아 문제집만 푼다고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금까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학습 전 단계 - 준비단계

학습 전 단계에서는 공부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도끼(능력, 특성에 맞는 자신만의 공부방법 습득과 학습동기, 유능감, 환경조절력 높이기)를 날카롭게 하여야 나무(성적)를 많이 벨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자신만의 공부기술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부기술을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게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학교 환경에서는 소수유형에게만 유리한 학습환경으로 되

어 있으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다보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 최근 뉴스에서 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지능이 차지하는 비율은 4%이고 공부방법(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을 18%라는 연구 결과가 소개된 적이 있다. 이는 머리가 좋고 나쁨이 성적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능지수가 90만 넘으면 전교 1등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학습 중 단계 - 실제 공부하는 단계

학습 전 단계에서 익힌 공부기술을 실제 공부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이때는 정말 노력이 중요하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에서 잘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는 아무리 좋은 도끼를 가졌다 하더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것과 같다.

학습 후 단계 - 전략적 평가와 쉬는 단계

자신의 학습한 내용과 방법을 평가하는 것은 실수를 줄이고 발전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후 쉬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기에 계속해서 공부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TV 시청을 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TV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낸다. 그러다 보니 공부한 내용과 섞여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공부 후 바로 TV 시청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 또한 좋은 쉬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많은 시간 게임을 하게 되면 눈과 귀 등 신체가 더 피곤해지고 공부의 집중을 방해한다. 이때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꼭 하고 싶다면 게임이나 TV시청은 주말에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좋다.

효과적인 학습기술 배우기

효과적인 공부방법은 많이 있다. SQ3R, 코넬노트, 마인드맵, 핵심과약전략, 속독법 등등 많은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이중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하나 소개한다면 READ 전략이 있다.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과서이다. 교과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어의 READ라는 말은 '읽다'라는 뜻이다. 이 READ 전략은 바로 교과서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다.

Read(읽기) - 핵심단어나 어구를 찾기 위해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Evaluate(평가하기) - 중요한 단어들을 결정하기 위해 각 문장들을 평가해본다. 중요한 단어들은 밑줄을 긋는다.

Analyze(분석하기) - 중요한 단어를 분석하여 공통점을 찾는다.

Decide(결정하기) - 중요한 단어와 공통점을 가지고 주제문장을 결정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공부는 습관이기에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기에 습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늦었다는 생각이들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학습유형을 알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배우고 실제로 실습하여 자신만의 공부방법을 찾는다면 더 나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천안함 1년이 지난 지금.....



한 상 기

진해 안골포초등학교 교사
(故 한주호 준위 아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침몰하고, 수많은 용사들이 원혼을 채 달래지도 못한지가 어느새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또 누구에게는 평생 지켜주마 약속했던 남편이었으며, 또 다른 이에게는 넓은 어깨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아버지이었습니다. 그 누구하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고 그 누구하나 애석하지 않은 죽음은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은 너무나 큰 것이었고, 많은 혼란과 실의에 빠졌습니다.

저 또한 그 당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제 곁에 계실 줄만 알았던 아버지..... 저에게 25년간 아버지란 분은 망망대해를 밝혀주는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셨고, 성장해서는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나침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직까지도 아버지와 마지막 전화통화가 잊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온이 너무 낮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물살이 강해서 잠수하기 힘들구나, 그래도 아버지가 가야지 누가 가겠냐.” 걱정 말라던 아버지, 다음 휴가 나오면 소주 한잔하자며 건강히 군 생활 잘 하라는 말을 하시고는 영영 돌아오시지 못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론 엄하고 인자했던 아버지의 두 눈을..... 이제는 더 이상 저는 느낄 수도 없습니다. 힘내라며, 아들을 항상 믿는다며 안아 주시던 아버지의 체온을..... 다시 오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임종 소식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

을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자꾸만 제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실의에 빠진 어머니를 위로해야 했고, 아직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하나뿐인 어린 여동생에게 다가온 현실은 차디찬 겨울보다도 가혹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고 힘내라며 저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국민들과 국가에서는 물심양면으로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받은 은혜만 해도 저는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교단에 서게 되었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이렇게 지나 얼마 전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나니, 이제야 아버지를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신 건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슬픔과 시련을 주신 것인지……. 조국과 전우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정작 본인의 안위는 왜 생각 하지 않으신 것인지…….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원하시던 선생님이 되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가 직접 교과서에서 아버지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생전에 늘 제게 하시던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도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의 그 사건은 잊힐지라도 차디찬 물속에서 조국을 위해 몸 바친 46명의 용사들과 아버지의 참된 희생을 영원히 가슴 속에 묻어 둘 것입니다.



원장님은 면허증 있어요?



정 숙 자

창원교육지원청 학생부모지원과 프로젝트 조정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교육부에서 보편적 복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상의무교육제도이다.

그런데 학교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고 해서 교육적 결과가 평등하게 보장될 수는 없다. 교육은 가정이나 사회와 단절된 진공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차이, 입학 후의 가정의 지원과 환경 차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진다.

학교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도 불평등한 조건과 배경을 안고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학교가 제공하는 표준적 교육서비스는 여전히 격차를 만들 수밖에 없다.

구조적 저성취와 학교부적응의 대응 등은 선별적 교육복지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지역민들은 학교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다만 학교에 어떻게 접근해서 도움을 줘야 할 지 머뭇거릴 뿐이다. 이런 지역민들을 교육활동으로 활용 연계한다면 보편적복지를 실현하는 교육의 지름길이 될 수있다. 우리 교육의 보편적복지를 위한 교육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선별적 복지차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를 지도하고 있다. 열악한 학교는 자원이 무한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계 최초 이·미용 자원봉사자(경력20년 이상으로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한 원장으로 구성)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손질해 주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미용실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아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이 아동들을 우리 어른들은 무조건 보듬어 줘야 한다. 사실 아이 대다수는 정서만 안정되어도 공부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용봉사 원장들은 그동안 경로당 등에 봉사를 다녔지만 학교 봉사는 50평생 처음이라고 한다. “단순히 머리만 깎아주려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느끼며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오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머리에 만족했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 세상을 좀 더 밝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고 한다.

열악한 학교당 30여 명에게 4명의 원장이 머리를 다듬어 줄 때 원장들은 미용실 Shop의 의자 높이와 달라 허리도 많이 아프단다. 그래도 열악한 아이 한 명 더 손질해 주고자 애쓰시는 모습은 ‘인생은 아름다워’ 그 자체다.

사춘기 아이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기이다. 0.1mm에 울고 웃고 하는 때가 아닌가. 원장들의 실력만큼 학생의 만족도는 날로 높아져 학생의 정서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모 초등학교 학생 머리카락을 자르던날!

4학년 동현(가명)이는 뚱뚱하고 땀도 많이 흘리는 체질이다.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뭉쳐있기도 하다. 그런 동현이에게도 여자 친구는 있단다.

좋아하는 여자친구 은진(가명)이가 머리 손질할 때 안보는 척 하면서 힐금힐금 유심히 살피고 있다. 머리가 반쯤 손질되고 있을 때 동현이는 점잖은 소리로 “어, 우리 은진이 한 인물 나. 훗~하네.” 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우린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웃었다. 학교에서도 주로 노인들이 쓰는 말투를 자주 사용한다는 동현이는 할아버지와 생활하는 아이란다. 같은 또래 아이는 “우리 엄마가요. 앞머리만 짧아주세요.” 하면서 응석을 부리는 아이가 대다수다. 이런 친구를 보면 ‘엄마 없는 동현이는 어떤 마음일까?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순간 가슴이 애잔했다.

드디어 웃겼던 동현이가 머리 깎는 순서!

덩치가 커서 앉는 의자가 순간 삐걱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말, “원장님 면허증 있어요?” 원장은 대답도 못하고 내 얼굴부터 살핀다. ‘너무나 귀여운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표정이다. 2년 넘게 학교봉사를 다녔지만 면허증을 찾는 아이는 없었기 때문이다.

원장은 “아, 예,어떡하지요? 미용면허증을 미처 못 가져 왔네요. 다음에 가져오면 안 될까요?” 그러자 동현이는 “내 머리는 미용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맡기는데.” 우린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또다시 웃음보가 터졌다. 사실 부모 없는 아이들은 자기주장을 쉽게 내세우지 못하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데 반해 동현이는 얼마나 기특한가. “동현아 너 말 참 잘한다. 멋있다” 하니 “아 예 예”

대답하는 것도 꼭 어른처럼 한다. 미용 원장은 “동현이 덕분에 25년 동안 벽에 걸린 면허증을 복사 해야겠구나. 근데 난 원장인데 면허증은 한번 봐 주면 안 되겠니?” 물으니 아 그래요? 그럼 알겠어요. 한번 봐 드릴 테니 내 머리카락 잘 해주세요” 동현이는 큰 선심을 쓴 듯 어깨에 힘주어 말했다. 어떤 날 보다 참 행복한 하루였다.

변두리에 있는 어떤 중학교는 미용봉사 날이면 학생들이 마냥 기다리고 있다. 이 학교장은 “혹시나 아이들이 작은 상처라도 받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 일을 통해 서로 도우며 세상은 살아야 한다는 좋은 교육의 계기”가 되었다며 “아이들이 만족해서 다행”이라고 말씀 하신다. 사실 이 사업은 장소가 초를 다투는 학교인 만큼 교육지원청, 학교관계자, 학생,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협력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학생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선생님 이 사람들 정말 자원봉사하는 것 맞아요?”, “응. 왜 아닌 것 같니?”, “아뇨 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복지관 같은 곳에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미용실 가면 돈 주고 머리 깎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돈도 안 받고 하는 것이 안 믿어져서요.” 학생에게 지역사회자원 및 자원봉사 의미를 설명하니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이 학생의 꿈은 건축설계사로 훗날 자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로 집 설계도 해 줄 것이라고 나에게 당당히 자랑했다. 이·미용 봉사는 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라 더욱 뿌듯한 순간이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활용이 교육활동의 큰 재산이며 교육선진국 지름길임에는 틀림없다.





참여
마당

교원 마당

일곱 송이 보석 꽃



안 정 애

하동 쌍계초등학교 교사

지리산 자락아래
보석 꽃 피어났네.

햇살은 친구되어
양손에 방글방글

하늘도
일곱 빛 보석 꽃을
큰 품으로 안아서

알로란 도토리들
내일을 밝혀주니

세상은 팍팍해도
웃음꽃 도란도란

세계 속
무한가능시대
희망지기 꿈나무!





팔용산



백 승 업

창원 삼정자중학교 2학년

뒷걸음 치는 내 마음
어머니께 싸메여 들어간
팔용산

연두빛 수채 물감이 물든 산에
분홍빛 진달래가 살포시 눈 뜬 산에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산에

새끼줄 같은 내 마음도
어느새
봄눈 녹듯 풀어지고

송송송 맷힌 땀은
겨우내
수학, 과학에 찌든 내 몸을 씻어내고

온갖 것 보듬어주는
산의 품에서
나도 넉넉한 사람이 된다.





지리산 행복학교로의 여행



이 미 영

통영 진목초등학교 교사

작년에 스스로와 한 약속 중의 하나였던 일년에 책 100권 읽기 운동은 40% 달성한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맞이한 새해에는 어떤 책으로 다시 이 운동을 시작할까 고민하던 중에 동학년 선생님의 추천으로 공지영의 『지리산 행복학교』를 읽게 되었다. 몇 년 전,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주고 양서를 추천해주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때 처음 접한 책이 바로 공지영의 『봉순이 언니』였다. 유복한 집의 막내딸이었던 작가의 어린 시절이 담아낸 순진한 봉순이 언니의 삶에 울고 웃으며 읽어 내려갔던 기억이 난다. 그 기분 좋았던 기억이 이어진 것일까. 공지영의 새로운 저서를 접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껏 설렘다

누구나 한번쯤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지리산에 오른 어느 등산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공지영의 저서는 대부분 소설이었지만 이 책은 지리산 산자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삶의 이야기다.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한 우리 세대와는 반대로 휴대폰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도인같은 그들의 삶은 여러 면에서 참 새로웠다. 월세, 세금, 전화비를 내느라 월급을 받아도 빠듯한 게 현대인의 삶이라면 지리산의 사람들은 일년에 연세 5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산자락의 쓰러져 가는 집에 연못을 만들고 세간을 정리하여 살아간다. 텃밭에 심은 채소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기에 밥상은 날마다 건강음식으로 채워지며 이들을 만나러 오는 관광객들이 두 손 가득 들고 온 삼겹살, 회로 배불리 잔치를 열기도 한다.

나에게는 아버지뻘 정도 되는 버들치 시인의 집에 수줍은 노처녀, 과부들이 손수 죽을

향기나는 서가 ●●●

꽃여와 오매불망 기다리는 장면을 보며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수줍고, 애정 어린 모습에 귀엽게 느껴져 살짝 웃음이 나왔다.

대통령의 삶도 이보다는 희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대인의 바쁜 삶을 거슬러 가는 듯한 이들의 삶이 답답하고 미련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책을 읽을수록 이들의 삶에 푹 빠져버리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의 삶은 단순히 산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 것이다. 오히려 누구보다 아팠고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던 과거를 풀어주는 지리산에서 단순한 삶을 통해 행복을 배워가고, 이제는 그 행복을 나누려는 넓은 마음이 오히려 바쁘게,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그래서 더욱 복잡해져만 가는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부산스러워지지만, 욕심내지 않고 지리산이 내어주는 만큼만 가꾸는 자족하는 삶이 오히려 이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 쥐어봤던 작가 역시 삶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찾아간 그 곳에서 생기를 되찾았기에 그 기쁨을 우리와 나누고 싶었을 것이다.

새 학기는 부산해야 제 맛인 양 매년 바쁘게 보내왔지만 아이들에게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해서 삶의 생기를 흘려보내야 마땅할 우리에게 오히려 이 생기가 메달라져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지리산 행복학교의 생기를 이 시대의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품명 : 봄과 장미



송 정 희

- 현) 고성 하일초등학교 교감
- 경남 미술대전 입선(한국화)
- 개천예술제 입선(서양화)
 - 토우회 회원전
 - 한국 미협 회원
 - 경남 선목회 회장
- 교원 예능 경진대회 1등급(한국화)
- 교원 예능 경진대회 1등급(서양화)
 - 통일 대전 입선

책 읽는 도민 희망찬 경남교육



- 책 속에 꿈 책 너머 희망
- 북(book)적 북(book)적! 경상남도
- 함께하는 책 읽기 함께여는 희망경남
- 펼쳐요! 책속 행복 누려요! 행복 경남
- 책 읽는 기쁨 나누는 행복
- 책을 내거리에 미래를 내품에

‘책 읽는 경남’은
도민 모두가 참여 합니다.

도서기증 기금을 조성합니다.

- 농 협 : 301-0076-8529-11
- 예금주 : 경상남도교육청(독서기금)
- 도서기증 문의 : 268-1118